

마흔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열아홉 번째 수

둘째 화 — 제6부

Jeff Pippenger

2026-07-20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를 보완하며, 곧 함께하여 온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며 끝을 맺는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사도행적』, 585.

성경 예언의 나라들은 예언을 연구하는 이의 주된 주목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말세의 외적 역사가 주로 그곳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왕국들의 흥망을 지배하는 원인들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청년들로 하여금 이 기록들을 연구하게 하여, 국가들의 참된 번영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들의 역사를 연구하게 하여, 이 원칙들이 멸시와 증오를 받아 그 옹호자들이 감옥과 형장으로 끌려갔을지라도, 바로 이러한 희생들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게 하라.” Education, 238.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들”이든, 혹은 “왕국들의 흥망성쇠”이든, 거룩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은 바울이 그 구절에서 밝힌 기별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구절은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것은 또한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관계이며, 또한 철과 진흙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울러 용과 교황권의 관계이기도 하다. 두아디라로 표상된 교황권 로마의 부상과 버가모로 표상된 이교 로마의 몰락은,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이 미워하는 진리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3년 선구자 도표에까지 반영된 밀러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 사이의 논쟁은 다니엘 11장 14절에서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로 표상된 역사적 세력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 강포한 자들이 밀러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교 로마의 흥기였는가, 아니면 개신교도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몰락이었는가?

“행동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나라는 ‘감시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땅 위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왔다. 예언은 세상의 큰 제국들—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흥망성쇠를 추적해 왔다. 이들 각각에게서도, 보다 세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었다. 각 나라마다 시험의 기간이 있었고, 각 나라는 실패하였으며, 그 영광은 쇠하여지고 그 권세는 떠나갔으며, 그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페이지들에 분명히 제시된 나라들의 흥망성쇠로부터, 단지 외적인 것과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바벨론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장엄함을 지냈으되, 그와 같은 것은 그 이후로 우리 세계가 다시 보지 못하였고,—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와 장엄함이 그토록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처럼 보였으나,—그것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풀의 꽃”처럼 그것은 멸망하였다. 하나님을 그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도 이와 같이 멸망한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지속될 수 있다. 그분의 원칙들만이 우리 세계가 아는 유일한 확고한 것들이다.” Education, 177, 184.

성경의 역사는 솔로몬이 결핍되면 망한다고 말한 그 이상(vision)이다. 밀러파는 요한계시록 9장 5절과 10절에서 “다섯 달”로 표상된 백오십 년을 인식하고 선포하였으나, 요한계시록 9장에 표상된 역사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들은 10절의 다섯 달을 올바르게 확인하였으나, 5절과 10절이 모두 “다섯 달”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단지 두 절 모두에 나타난 괴롭힘의 예언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이제는 5절이 나타내는 “다섯 달”이 무함마드의 죽음이 있던 632년에 시작하여 비잔틴 제국, 곧 동로마 제국의 여제 이레네의 굴욕이 있던 782년에 끝난 백오십 년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쉽게 입증된다.

선구자들은 10절을 1299년 7월 27일 니코메디아 전투로 적용하여, 콘스탄티노플에서 통치한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1449년 7월 27일 굴욕을 당함으로써 종결된 150년의 시작점으로 본 데 있어서 옳았다. 교훈은 교훈에 더하여, 150년의 한 기간은 전 세계적 이슬람을 식별하는데, 이는 첫째 화인 아라비아의 이슬람과 둘째 화인 터키의 이슬람으로 함께 대표된다. 황제와 황후를 함께 굴욕하게 한 그 이슬람은, 이레네로 대표되는 여자와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로 대표되는 남자로 이루어진 한 왕국을 정복하는 전 세계적 이슬람을 식별한다.

이레네의 굴욕으로 끝나는 백오십 년 동안, 아라비아의 이슬람은 비잔틴의 지역 곧 영토를 장악하여, 이레네가 다른 여러 강제 부과와 더불어 삼 년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의 굴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사 년의 기간의 시작을 표시하였으며, 그 기간은 포위와 동로마의 수도의 전복으로 끝난다. 두 경우 모두 그것은 이슬람이었으니, 이레네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이슬람이었고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의 경우에는 터키 이슬람이었다. 말세에, 첫째 화와 둘째 화에 제시된 아라비아 이슬람과 터키 이슬람의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이슬람은 먼저 영토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취할 것이다. 동로마의 콘스탄티누스로 대표되는 말세의 정치적 실체는 동로마의 이레네로 대표되는 말세의 종교적 실체와 상징적으로 결혼되어 있다. 내가 정치적 실체와 종교적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의 상징이 먼저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일어남을 말하기 위함이다. 짐승의 우상은 콘스탄티누스와 이레네의 상징적 결혼이며, 그들은 둘 다 이슬람에게 자신들의 영토와 수도를 빼앗김으로써 굴욕을 당한다.

그들의 결혼은 두 역사를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확인되며, 그것은 밀라노 칙령이 시행되고 상징적 서머나 교회가 끝나고 상징적 버가모 교회가 시작된 313년에 콘스탄티아와 리키니우스의 결혼으로 예표되었다. 바울이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로 지목하는 이들은,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울의 경고의 기별을 보기를 거절한다. 그 배도는 버가모의 역사에서 일어나며, 죄의 사람은 538년에 드러났고, 그때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고,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3, 4.

동로마의 역사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상징적 관계 속에도 나타나 있는 예언적 진리에
대한 두 증인을 제공한다. 그 관계에서 서로마는 교회이고 동로마는 국가이다. 로마는
다니엘 2장에 철과 진흙으로 표상된 바와 같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체이다.

말세에 전 세계적인 이슬람이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표상된 한 세력에 맞서 그 영토와
수도를 취한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의
거룩한 역사에서 비롯된 다른 두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오스만은 1299년 7월
27일 니코메디아의 영토를 정복하였고, 그 후 2년 뒤인 1301년에 니케아의 영토를
정복하였다. 그의 아들은 1331년에 수도 니케아를 정복하였고, 동일한 그 아들은
1337년에 끝난 4년간의 포위전 끝에 수도 니코메디아를 정복하였다. 선구자들은
오스만과 함께 1299년 7월 27일을 표지하였으나, 다음 전투인 니케아 전투를 오스만
제국 수립의 역사적 두 번째 단계로는 결코 주목하지 않았다. 1299년 7월 27일은
일요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였다. 터키 이슬람의 처음 두 단계는
1449년에 끝나고, 다시 1840년에, 다시 9/11에, 그리고 다시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 예언의 시작을 확인해 주었다.

그 두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백오십 년의 시작을 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삼십팔
년의 시작을 표하였다. 그것은 오스만이 니코메디아의 영토를 취함으로 시작되었고, 사
년에 걸친 포위의 끝에 1337년에 오스만의 아들이 니코메디아의 수도를 점령하였을 때,
삼십팔 년 후에 끝났다. 삼십팔이라는 수는 “일어남”을 상징하며, 오스만이 그 영토를
취한 최초의 단계는 터키 이슬람의 일어남을 표하였다. 그 첫 번째 삼십팔 년의 단계에서,
“사 년”의 포위는 그 결말을 표시한다. 백오십 년의 마지막 단계에서 굴욕이 가해지고, 사
년 후인 1453년에 동로마의 수도가 함락된다.

1453년의 오스만 튀르크이든, 혹은 오스만의 아들이 1337년에 니코메디아를, 1331년에
니케아를 모두 점령한 일이든, 이 세 경우 모두에서 각 수도는 역사상의 어느 시점에는
동로마의 수도로 기능하였다. 이 세 노선은 모두 동로마의 정복을 식별하고 있다. 이 세
노선 각각은 이슬람이 먼저 동로마의 영토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동로마의 수도를
정복하는 것을 식별한다. 이 세 수도의 명칭은 모두 그 영토의 명칭과 동일하다. 이 세
노선 각각은 분명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적 인물들을 지닌다. 황제와 황후가 모두
이슬람에 의해 굴욕을 당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식별하는 한편, 그 예언적 굴욕은
그들의 노선을,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로마 시보다 택함으로써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역시 굴욕을 당하였던 서로마와 결부시킨다. 서로마의 최종적인 굴욕은 마지막
황제와 함께 476년에 이르렀으며, 그때부터 급속히 쇠퇴하기를 계속하였다.

서방 로마는 동방 로마에 대하여 교회였고, 동방은 국가였다. 330년에 처음 굴욕을
당하였고, 이어 476년에, 그 다음에는 782년에, 그리고 다시 1449년에 굴욕을 당하였다.
한 왕국의 분열로 시작된 굴욕의 한 계열이 있었고, 이어 476년에는 황제를, 따라서

제국을 상실하는 굴욕이 뒤따랐으며, 그 후 이슬람이 먼저 782년에 동방의 영토에, 그리고 1453년에는 동방의 수도에 굴욕을 가져왔다.

성경 예언의 이슬람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계보를 모두 드러내며, 오늘날 이슬람이 산출하고 있는 빛은 밀러파 선구자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에 관한 기초적인 빛과 일치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2024년에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일어나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라”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시작된 시험의 때는 그 시험 기간의 알파였으며, 이제 그 시험 기간의 끝에서 요한계시록 9장의 이슬람이라는 주제에서 나오는 빛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평가된 적이 없었던 서로마와 동로마의 증인들을 더하고 있다.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위치한 역사의 계보들은, 이 글들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계보들과 연결되는 증언들을 제공함으로써, 9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이슬람의 예언적 계보들 안에서 함께 결합된다. 그러나 이슬람의 부상에 대한 예언적 예증 안에는 밀러파 운동의 부상과 십사만 사천의 운동의 부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시간 예언들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일부를 이루는 두 개의 4년 기간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4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1844년에는 더 이상 예언적 시간이 없으므로, 그 상징적인 4년 기간은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예언적 특징들에 의해 규정된다. 첫 번째 4년 기간은 그의 아버지가 그 영토를 정복한 지 38년 후인 1337년에 이슬람이 이전의 동로마 제국 수도였던 니코메디아를 정복한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4년은 1449년에 이슬람에 의해 초래된 동로마의 정치적·종교적 통치자들의 굴욕을 가리키며, 세 번째 4년은 1840년 8월 11일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던 천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밀러파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동안 셋째 천사의 역사와 일치한다. 그 최종적인 인치는 사업은 죄를 도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고, 이슬람에 의해 야기되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져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9:2-4.

모든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날들에 있으므로, 이 구절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심을 지적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이슬람에 관한 예언은, 이슬람이 제지된 1840년 8월 11일에 절정에 이른 역사 속에서 그 환상을 확립하는 능력에 대한 가장 완전한 예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역사적 열쇠를 제공한다. 그 시점부터 요한계시록 9장의 증언은 10장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셋째 화가 일요일 법령에서 갑자기 이르는데, 그때가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는 때이다. 9장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왕국들의 흥망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이라는 열쇠이다. 10장과 11장은 십사만 사천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경험을 밝혀 준다. 9장은 외적 환상을 확립하는 상징을 밝혀 주고, 10장과 11장은 지성소로 어린양을

따라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 내적 환상을 밝혀 준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을 펴 들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그 사건은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 곧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을 지시하는 예언의 끝에서,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되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그 이후의 역사를, 그 기별이 1844년 10월 22일 요한의 배에서 쓰게 되기까지 밝힌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네 해는 첫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하여 셋째 천사의 도래로 끝난다. 1840년 8월 11일의 성취 이후에 이어진 그 네 해는,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시작에서 1449년 7월 27일부터 1453년까지의 네 해에 의해 예표되었다. 이 두 네 해의 기간은 모두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니코메디아 포위의 네 해와 일치한다. 상징적으로 동로마는 이슬람에 의해 세 번 정복되었다. 첫째는 1331년 니케아 포위 때였고, 그 다음은 1337년 니코메디아의 네 해 포위였으며, 그 다음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포위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93년에 로마를 법적으로 동서로 분할하였고, 콘스탄티누스는 330년에 예언적으로 로마를 동서로 분할하였다. 395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죽음과 함께, 그가 동방과 서방을 그의 두 아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제국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분할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1054년 “대분열” 때 동서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은, 그 뒤를 이은 몰락이 그러하였듯이, 점진적이었다. 그 분열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그 날짜로부터 오십 년 이내에, 로마의 서방 교회는 이슬람에 대항하는 대략 이백 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였다. 서방 로마는 476년에 마지막 황제를 잃었을 때 멸망하였다. 동방 로마는 1453년에 멸망하였다. 교황권 로마는 1798년에 멸망하였다. 이교 로마는 393년, 330년, 그리고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었다. 교황권 로마는 1054년에 동서로 분열되었다. 화잇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 왕국들의 흥망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부터 역사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왕국들은, 그 환상을 확립하는 것이 로마라는 논증을 강화한다. 이슬람과 십사만 사천 사이의 예언적 연결은,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표되었던 자정의 외침의 기별이, 첫째 화의 시기에 시작되어 둘째 화에서 그 예언의 둘째 부분으로 계속되었고, 바로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첫째와 둘째 천사의 밀려 운동이 시작되었던 4년의 역사 속에서 그 성취에 이르렀던 한 시기 예언으로 표상된다는 증거이다. 그 예언은 이슬람의 발흥을 나타내는 “삼십팔과 이 년”(1299년과 1301년)이라는 해의 상징으로 시작되었고, 밀려주의자들의 발흥을 나타내는 “삼십팔과 이 년”(1838년과 1840년)이라는 상징으로 마쳐졌다.

1844년,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포위와 1449년부터 1453년의 포위로 예표되었던 밀려파의 4년 기간이 끝남과 더불어, 더 이상 예언적 시간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들어 올리는 일은 이슬람이 들어 올려지는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붙들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로 만민의 복종이

있으리다.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의복을 포도즙에 빨리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젖으로 인하여 희리다. 창세기 49:8-12.

십사만 사천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반영하며, 그리스도는 다른 상징적 표상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포도나무"이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12에서 "들"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들"로 번역된 단어는 아라비아의 들나귀이다. 말일에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아라비아의 들나귀의 기별,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의 기별, 발람이 그를 세 번째로 친 후 마침내 말하였던 그 나귀의 기별을 탄다. 1840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던 그 기별은, 그 운동에 능력을 부여한 기별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예언적 역사 안에, 적절하고 중대한 백오십 년의 예언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바로 그 동일한 시기 예언 안에,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를 예표한 두 개의 사 년 기간을 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제 "옛 길들"로부터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한 빛을 열어 보이시고 계시며, 그것은 2023년 12월 31일 이래 열려 오고 있는 그 빛과 일치하는 빛이다. 그것은 내슈빌을 치는 것이 이슬람인지 여부에 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그 빛은 로마의 상징을 밝히 드러내어, 2024년에 네 백성의 강도들에 관한 알파 논쟁에 대한 오메가 진술이 되며, 또한 밀러운동 역사에서 바로 그 동일한 상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오메가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의 시기 예언들에 나타난 이슬람이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의 내부 역사 동안의 외적 기별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 동안 가르쳐 왔으나, 이제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끝나는 한 노선 위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성취된 이슬람의 시기 예언에 연결된 세 번째 사 년 기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를 예시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십사만 사천은 기로 들림을 받는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은 아담의 창조로 예표되었던 두 단계의 과정이다. 먼저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에스겔서에서는 첫 번째 예언이 죽은 몸들을 형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다. 그 후 사방의 바람이 그 몸들 위에 불어지매,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38과 40이라는 수는 그 두 단계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일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더라. 그 안에 큰 무리의 병자들, 곧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으니, 이는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음이라.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을 앓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또 그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요한복음 5:1-9.

이제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고 내가 말하였더니,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노라.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군사된 모든 세대가 진중에서 다 멸절되기까지였느니라. 신명기 2:13, 14.